

세이法則과 케인즈

朴 明 浩*

올해로 케인즈 사후 50년을 맞이하여 전세계적으로 케인즈의 업적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케인즈에 대한 재평가작업은 대체로 전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선진국 경제정책의 기초를 이루어왔던 케인즈안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의 경제학계에는 아직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이해조차 불충분한 실정으로 본 논문에서는 케인즈 사후 50년을 맞이해 케인즈경제학의 중요한 출발점의 하나인 세이법칙 부정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학계의 일각에서는 경제이론의 발전이 세이법칙과 임금기금이론에 대한 극복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즉 세이법칙과 임금기금이론을 토대로 하는 고전과 경제학은 신고전과 경제학을 통해 임금기금이론을 생산성임금이론으로 대체시켰고, 케인즈를 거치면서 세이법칙을 극복했다고 평가된다.

본 논문은 우선 세이의 저작을 토대로 판로법칙의 배경 및 그 이론적 의미를 고찰하고, 이어서 세이법칙이 리카도, 마르크스 등 고전과 경제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겠다. 이어서 신고전과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일반균형 체계 내에서의 세이법칙의 의미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케인즈에서의 세이법칙 부정의 내용을 이론적, 역사적 차원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I. 서 론

세이가 자신의 판로법칙을 통해 당시의 경제학자들을 설득하려 했다면, 그 내용은 다름아닌 “하나의 생산물을 만든다는 것이 그 순간 즉시 다른 생산물의 판로를 열어 준다는 사실”¹⁾이다. 여기서 생산이란 단순한 물질적 개념으로서의 생산보다는 효용의 증진을 뜻하는바, 생산의 증대는 그만큼 사회적 후생수준을 높여 준다고 하겠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세이에서의 생산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세이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새로운 생산물은 다른 생산물에

* 한국개발연구원.

1) J. B. Say, *Traite d' Economie Politique*, p. 141.

게 판로를 열어 주기에 지속적인 투자만 이루어진다면, 재화의 생산 역시 같은 규모로 증대되어 경제 전체의 효용수준은 그만큼 향상될 것이다.

고전과 경제학자의 세이법칙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우선, 리카도는 세이의 판로법칙에 대한 신봉자로서 세이법칙을 고전과 경제학의 주요 명제로 인식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반면, 같은 고전과 경제학 체계 내에서도 맬서스, 시스몽디, 마르크스는 세이법칙의 비판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무튼 세이법칙은 이들의 비판으로 유명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세이 자신도 이들의 비판논리에 대응하면서 판로법칙의 내용을 정련화시키게 되었다.

한편, 왈라스는 세이법칙이 충실히 적용되는 경제에서 시장경제의 상호의존성에 입각한 일반균형이론을 발전시켰다. 왈라스는 세이의 전통하에서 기업인을 제4의 경제주체로 파악하고 자본가와 다른 기업가 고유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영국의 전통적 경제학자와는 차별되는 입장을 보여 주려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왈라스는 일반균형이론의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기업가의 독립적 역할을 이론화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왈라스에 이어 빅셀과 슈페터 역시 일반균형이론 체계 내에서 세이법칙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케인즈 경제학과 가교역할을 하였다.

케인즈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해석하에 세이법칙을 완전고용의 문제와 연계하여 해석하였다. 특히, 케인즈에서 세이법칙에 대한 부정은 기업의 투자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가가 자본가로서 자본을 스스로 조달하던 경우에는 저축과 투자는 동일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들은 항상 일치하였는 데 반해, 자본주의 경제가 점차로 발전하면서 저축하는 사람과 투자자는 분리되고 저축과 투자의 항등관계는 사라진다. 이는 다른 말로 투자와 저축의 항등관계를 나타내는 세이법칙은 기업가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의해 자금조달을 하는 현대에 와서는 더 이상 성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케인즈는 세이법칙의 부정을 통해 생산요소에 대한 완전고용이 더 이상 보장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케인즈 사후 50년을 맞이해 케인즈경제학에서 세이법칙(부정)의 의미 및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제Ⅱ절에서는 세이 자신의 판로법칙을, 제Ⅲ절에서는 고전과 경제학 내에서의 세이법칙의 위상 및 평가를, 제Ⅳ절에서는 일반균형이론 체계 내에서의 세이법칙의 의미를 다

루도록 하겠다. 이런 세이법칙에 대한 학설사적인 이해를 토대로 마지막으로 케인즈경제학에서의 세이법칙 부정의 이론적, 현실적 의미를 다루도록 하겠다.

II. 세이의 판로법칙

세이의 판로법칙은 오랜 기간 경제학자의 관심 및 토론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세이법칙은 한편으로는 명백한 진리²⁾라고 높이 평가되어지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판매와 구매의 항등관계를 나타내는 단순한 동어반복³⁾이라고 평가절하되기도 한다. 특히, 세이법칙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⁴⁾라는 케인즈의 해석 이후 세이 자신의 해석보다 더 인구에 회자하게 되었다. 아무튼 케인즈의 세이법칙에 대한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떠나 세이법칙의 수용여부는 주류 경제학자와 비주류 경제학자 또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를 구분하는 중요한 방편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⁵⁾ 특히 이런 부류는 1980년대 이후 세이법칙의 전통을 강조하는 공급경제학의 대두와 함께 아직까지도 상당부분에 있어 유효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런 이념적 구분은 세이 자신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하겠다. 특히 세이와 리카도는 자신들의 자유주의적인 이념을 주창하면서 당시의 보수주의를 극복하고자 한 데 반해, 맬서스는 당시의 보수주의의 이념을 옹호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⁶⁾ 케인즈의 세이법칙에 대한 평가 이후 세이, 리카도와 맬서스 간에는 이념적 전도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세이의 판로법칙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이 법칙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 줌으로써 고전과 경제학의 디딤돌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세이는 자신의 이론을 형성함에 있어, 세 가지 이론적 유산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우선, 세이이론의 출발점은 중상주의에 대한 부정에서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세이의 국부관을 살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즉 중상주의에서는 국부가 귀금속의 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데 반하여, 세이에 의하면

2)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p. 617.

3) Marx, *Capital*, Vol. 1, p. 117.

4) Keynes, *General Theory*, p. 18.

5) Robinson, *Essai sur l'Economie de Marx*, p. 34 및 Foley, “Say's Law in Marx and Keynes”, 1985, p. 183을 참조.

6) 이와 관련하여서는 Baumol, “Say's at least eight laws”, 1977을 참조.

국부는 효용을 지니고 있는 상품의 생산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⁷⁾ 이어서, 중농주의의 전통하에서 세이는 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순환 및 상호의존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었다.⁸⁾ 중농학파가 농업사회의 경제순환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세이는 경제순환의 문제를 산업사회에 적용코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이는 애덤 스미스의 영향하에서 경제학을 배웠고 그 결과 세이는 “혼자 설 수 있게 되었다.”⁹⁾ 특히, 세이는 국부증진을 위해서는 투자지출이 비생산적인 소비보다 중요하다는 스미스의 성장론에 영향을 받아 생산경제의 미덕을 중시하게 되었다.

세이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대답에서 시작한다. “어떻게 현재의 프랑스에서 찰스 4세 때보다 6배 내지 8배의 물건을 살 수 있는지? 이는 현재는 과거보다 6배 내지 8배를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이다.”¹⁰⁾ 이런 세이의 대답은 투자로 직접 연계되는 저축의 미덕을 강조하는 고전파 경제학자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다.

세이는 경제학자이며 동시에 기업가로서 일찍이 생산활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세이에 있어서 기업가는 “모든 생산자계급 그리고 생산자계급과 소비자 간의 중재자이다. 기업가는 생산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거나 모르는 것 그리고 생산활동의 우발적인 이득을 이용”¹¹⁾하는 사람이다. 즉 기업가는 사회의 수요와 생산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으로 생산을 관리하고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정의내려진다.

한편, 각자가 자신을 위해 생산하는 자연경제에는 기업가가 필요없기에 기업가가 존재하려면 노동의 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세이는 노동의 분화가 이루어진 세상에서는 상품의 부분적인 과잉생산은 가능하지만 모든 상품의 과잉생산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이 분화된 경제에서만 산업의 수요는 다른 모든 산업에서 유발되는 수요에 의해 결정되어지기에, 결과적으로 특정 산업의 공급과는 무관하게 수요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분야에서의 초과공급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전체 차원에서 총수요와 총공급을 볼 때, 이들은 상호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 전반에 걸친

7) 이에 대해서는 Dobb, *Political Economy and Capitalism*, 1940, p. 41을 참조.

8)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p. 249와 p. 497을 참조.

9) J. B. Say, *Oeuvres Diverses*, p. 455., G. Tapinos의 *Traite* 서문(p. vi)에서 재인용.

10) J. B. Say, *Traite*, p. 138.

11) J. B. Say, 상계서, pp. 376-377.

과잉생산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기업가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결정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다면, 상품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그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적 서비스에 지불된 가치의 합과 같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요소에 지급된 가치의 총합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기 위해 지출된 액수의 총합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시장경제에서는 세이의 지적대로 생산 또는 투자를 위한 지출이 경제의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세이 자신은 경제의 장기발전과정에 대해서 특별한 이론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세이는 희소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잠재적인 수요는 항상 생산능력을 넘어서기에 기업가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생산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에서 세이는 경제의 무한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렇기에 공급 측면에서의 제약조건만 없다면, 생산의 지속적 성장은 가능하고, 어떤 수준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요와 공급은 항상 일치된다.

이런 의미에서 세이법칙은 노동의 분화가 지배하는 경제에서의 판매와 구매의 항등관계를 보여 준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세이법칙이 지배하는 한 경제성장은 공급 측면에서 장애요인만 없다면 무한정 가능해진다. 특히 세이가 설정한 경제에서는 생산된 모든 재화는 즉시 소비되고, 불확실성이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만 한다.

Ⅲ. 고전파 경제학에서의 세이법칙의 위상

1. 리카도의 세이법칙 옹호

리카도가 세이법칙의 열렬한 지지자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세이의 *Traite d'Economie Politique*를 자신의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이하에서 원리)* 서문에서 세이가 “학문의 논리적 발전 및 교육적 체계의 수립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Traite) 15장 “판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¹²⁾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리카

12) D. Ricardo,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Works and Correspondence*, Vol. 1, CUP, 1970, pp. 6-7.

도는 자신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의 하나인 21장 “축적이 이윤과 이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세이의 판로법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세이가 만족스럽게 설명하였듯이 한 국가에서는 수요가 생산에 의해 제한되어 지기에 사용되어지지 않는 자본은 없다. 사람들은 소비하거나 팔기 위해 생산하고, 또한 자신의 미래 생산에 도움이 되거나 당장 필요한 다른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 물건을 판다. 즉 생산을 함으로써 그는 필연적으로 자신이 생산한 재화의 소비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재화의 소비자 또는 구매자가 된다.”¹³⁾

위의 인용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리카도에서의 세이법칙도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한다는 항등관계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총수요와 총공급의 일치는 기본적으로 투자와 저축의 항등관계라는 점에서 세이법칙은 궁극적으로 저축과 투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특히 모리시마는 리카도에서의 세이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리카도경제학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다루고 있다.¹⁴⁾ 흔히 리카도의 경제는 근로자, 자본가, 지주로 구성된다. 리카도에서의 자본가는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농부 또는 제조업자로 언급되고 있는바, 이들이 기업가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사회의 생산물은 위의 3계급에 의해 각각 임금, 이윤, 지대의 명목으로 나누어진다. 리카도는 자본가를 경제발전의 주축으로 보고 있는 반면, 지주는 소비재와 사치재의 구매에만 신경을 쓸 뿐 장기적인 자본축적에는 일체 도움이 되지 않는 계급이라고 간주한다. 그렇기에 리카도의 자본축적 모형에서는 자본가는 높은 저축률을 가정하고 있는 반면, 지주는 거의 무시할 수준의 저축률을 보이고 있다.¹⁵⁾ 한편, 근로자 역시 낮은 임금수준으로 말미암아 저축률이 거의 0에 가깝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리카도의 단순모형에서는 저축을 담당하는 자본가와 투자를 담당하는 기업가가 동일인이기에 총저축과 총투자는 자동적으로 일치하게 된다. 물론 마르크스와 모리시마의 지적대로 저축과 투자를 동일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13) Ricardo, 상계서, p. 290.

14) M. Morishima, *Ricardo's Economics*, CUP, 1989, p. 155.

15) 파시네티의 모형도 위와 같은 사회관을 토대로 구축되었음. Pasinetti,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CUP, 1974, p. 6을 참조.

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¹⁶⁾ 그렇다고 리카도 자신이 자본가계급만이 사회의 저축계급이라고 가정한 것은 아니다. 그는 사회의 모든 계급은 잠재적 저축자라고 보았으며, 그 중에서도 지주는 명백히 저축능력을 갖추었다고 간주한다.¹⁷⁾ 이와 같이 자본가계급 이외의 계급이 저축을 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자신의 자본에 대한 제약조건을 넘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본(floating capital)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¹⁸⁾ 리카도는 이런 의미에서 “자본이 이윤을 낼 수 있는 한 자본은 완전고용된다”¹⁹⁾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투자가 저축을 넘어서는 경우 자본가는 지주 등의 부유계층으로부터 돈을 빌림으로써 모자란 투자액을 충당한다. 투자(I)는 자본가에 의해 모아진 저축(S)에 의해 그 범위가 설정되어 지기에 $S \geq I$ 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리카도가 맬서스에게 쓴 편지에서 “유효수요는 구매력(power to purchase)과 구매하려는 의지(will to purchase)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구매력이 존재하는 한 구매하려는 의지는 거의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축적의 욕망은 소비욕망과 마찬가지로 수요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축적욕망은 단지 수요가 작용하는 대상을 변화시킬 뿐이다”²⁰⁾라고 지적한다. 여기서 구매력을 국민소득(Y), 구매하려는 의지를 총수요(C+I)라고 한다면 $Y \leq C+I$ 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S \leq I$ 를 의미하는바, 앞절의 $S \geq I$ 와 함께 $S=I$ 가 된다.

이와 같이 리카도는 세이법칙을 통해 투자와 저축이 항상 일치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다. 즉 리카도에 의하면, 세이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하나의 특정 재화는 시장에서 과잉생산이 가능하지만, 모든 재화의 과잉생산은 발생

16) 마르크스는 특정한 기계를 구입하려면 상당한 액수의 저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외에도 투자시기의 선정 문제도 수반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모리시마는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여 세이의 법칙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계획이 분리될 수 있어서 저축이 곧바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세이법칙은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가 지배하는 경제보다는 투자의 대부분이 임금기금의 형태를 이룰 때 보다 쉽게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Morishima, 상계서, p. 156의 주 12) 참조.

17) Ricardo, 상계서, p. 89.

18) Ricardo, 상계서, p. 89.

19) Ricardo, 상계서, p. 296.

20) Ricardo, *Letters, Works and Correspondence of Ricardo*, Vol. VI, ed. by Sraffa, CUP, 1952, p. 133.

할 수 없다”²¹⁾는 점에서 부분적 과잉생산은 가능하지만 일반적 과잉생산은 발생할 수 없다고 한다.

2. 과잉생산논쟁: 맬서스와 시스몽디

맬서스가 리카도의 일반적 과잉생산의 불가능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맬서스가 당시 발흥하기 시작한 산업사회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맬서스는 자신의 『경제학원리』의 서문에서 과도한 저축은 생산의 동기를 파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맬서스에 의하면, “자본과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 첫째로 필요한 것은 생산물에 대한 충분한 가격을 주고 제품을 구입할 능력 및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유효수요이다”²²⁾라고 하며, 생산활동에서의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맬서스에 의하면 지불능력을 갖춘 수요와 지불능력이 수반되지 않는 수요의 구분은 생산물의 시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그런데 맬서스는 생산활동 자체로는 생산물에 대한 충분한 수요를 창출할 수 없음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맬서스는 추가적인 고용에 의해 새로이 생산된 제품이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 의해 모두 흡수될 수 없기에 결과적으로 기업가는 추가적인 생산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맬서스가 생산의 증가가 투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투자는 상품수요를 의미하고 있음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점은 맬서스가 자본가의 소비성향이 낮기에 추가적인 생산물에 대한 충분한 구매력을 제공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생산적 노동에 고용된 사람들에 의한 소비와 수요는 축적과 자본사용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향락을 절제하고 절약함으로써 자신의 소득을 자본축적에 기여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노동의 고용에 의한 생산물의 공급증대가 저축의지를 줄이지 않고는 제품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원가 이하 판매 말고 어떤 다른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21) Ricardo, 상계서, p. 292.

22) 이러한 맬서스의 견해는 18세기의 주된 경제학자들인 보아길베르, 맨더빌, 버클리 등이 영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Denis, *Historie de la pensee economique*, p. 336을 참조할 것.

수 없다.”²³⁾

여기서 맬서스는 시스몽디에 주장되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과소소비 설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즉 과소 소비를 다루기 위해서는 자본가가 저축을 통한 투자결정을 할 때 발생하는 자본재의 수요가 소비의 증대에 어떻게 연계되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했어야 했다. 그러나 맬서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단순히 저축이 즉각적으로 과소소비의 상황을 가져오리라고만 지적하였다. 물론 경제가 단지 소비재로만 구성되었다면 이런 맬서스의 주장이 옳을 수 있다. 이런 논리적인 오류에도 불구하고 맬서스의 유효수요이론에 입각한 과잉생산의 가능성은 당시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설득력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더욱이 당시의 경제위기의 원인이 고전파 경제학에서 지적해 왔던 자본의 부족이 아닌 과도한 저축에 의한 자본의 과잉공급이라고 주장한 점은 케인즈의 일반이론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맬서스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공황 가능성을 치유하기 위해 이미 대규모 공공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교역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대내외 교역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판로를 열어 주리라 믿었기에 교역의 활성화를 통한 시장규모의 확대가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가능케 하리라 생각하였다. 또한 국가의 지출증대 또는 지주에 의한 하인고용과 같은 비생산적 활동을 영위하는 인구의 증대 역시 유효수요의 창출에 크게 기여하리라 지적하고 있다.

한편, 산업화의 병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시스몽디도 맬서스와 같이 유효수요이론을 근거로 세이의 판로법칙을 부정하고 있다. 시스몽디에 의하면, 한 해의 소득은 지난해의 소득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한다.

“국가의 부는 발전하면서 순환적으로 움직인다. 모든 결과는 그 다음에는 원인이 되고, 한 발자국은 그 전 발자국을 따를 수밖에 없다. 국민소득은 국민지출을 결정하고, 국민지출은 소비기금 안으로 모든 생산을 흡수한다. 절대소비는 재생산을 결정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서클이 확장되거나 나선형으로 변할 수 있다. 즉 지난해에 10을 생산·소비했으면, 다음 해에는 11을 생산하여 11을 소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소비가 얼마나 잘 흡수되었는지의 정도는 지난해의

23) Malthu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p. 279.

결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²⁴⁾

시스몽디는 유한한 일차적 필수품의 수요와 무한한 사치재의 수요를 구분하고, 경쟁적인 경제체제의 운영으로 인한 제한적인 임금 때문에 수익성 있는 생산은 부유계층에 의한 사치성 소비재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부유층은 자신의 이윤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사치재의 끊임없는 과잉생산을 경험할 것이라 한다. 그 결과 시스몽디는 맬서스와는 달리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근로자들의 궁핍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리라 보았다.

또한 맬서스가 부유층의 과잉저축으로 인한 과잉생산의 가능성을 보여준 데 반해, 시스몽디는 근로자의 과소소비를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시스몽디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시장에 고기와 곡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들을 살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²⁵⁾라고 하면서 맬서스의 입장을 반박하였다.

시스몽디에 의하면, 사람들이 구매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은 생산자들이 다른 생산자보다 물건을 싸게 팔려고 하는 경쟁의 결과라고 한다. 이런 경쟁과정에서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신기술은 금방 모방되리라는 점에서 기술진보는 임시적인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스몽디는 “공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파괴적인 원칙이 바로 저임의 노동력이다”²⁶⁾라고 하며 근로계층의 저임금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바로 이런 저임금 때문에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의 결과가 격인하경쟁은 보다 치열해지고 임금은 감소하고, 사람들의 빈곤은 더욱 심해지리라 보았다. 이와 같이 시스몽디는 근로계층의 과소소비로 인한 과잉생산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세이법칙을 부정하고 있다.

3. 마르크스의 세이법칙 비판

마르크스가 자신의 이론적 목표를 ‘자본주의 사회의 운동법칙’의 규명에 두

24) Sismondi, *Nouveaux principes d'economie politique ou de la richesse dans ses rapports avec la population*, 1819, livre 2, ch. 4.

25) Sismondi, “la Politique des revenun”, 1838, p. 48.

26) Sismondi, *La question ouvriere*, 1838, p. 95., A. Silem, *Historie de l'analuse economique*의 p. 95에서 재인용.

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마르크스는 고전과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보다는 흔히 이윤율 저하법칙으로 특징지어지는 경제의 장기발전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애덤 스미스는 자본의 과잉공급으로부터 이윤율 저하를 설명한 데 반해, 세이법칙을 신봉하는 리카도는 스미스에서의 자본의 과잉공급현상은 세이의 이론과는 양립할 수 없음을 인치하고 스미스와는 달리 세이법칙을 수용하는 범위에서 인구증가에 따른 풍요한 경작지의 감소로 인한 지대상승으로부터 이윤율 저하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이윤추구로부터 이윤율 저하경향을 설명코자 하였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윤율 저하법칙을 논의하면서 상품의 가치는 항상 생산가격과 일치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세이법칙을 수용하고 있다. 이런 마르크스의 이중적인 입장은 그 자신이 세이법칙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로빈슨은 “마르크스는 정통 주류 경제학이 세이법칙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그는 세이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세이법칙을 부정하는 공황이론을 찾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이중성은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그 후계자의 증명을 불투명하게 한다”²⁷⁾라고 지적한다.

이런 로빈슨의 비판은 부분적으로는 마르크스의 공황 개념에 대한 혼돈에서 기인한다. 쇼울의 지적대로 마르크스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공황 개념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황 개념의 두 가지 공황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²⁸⁾ 즉 『자본론』 3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이법칙을 묵시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자본주의 자체의 붕괴 가능성을 보여 주는 공황이론과 잉여가치론에서의 세이법칙을 부정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재생산과정에서의 공황 가능성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로빈슨은 이 두 가지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의 세이법칙 비판은 리카도의 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우선 세이법칙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은 세이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생산물이 생산물에 의해 교환되는 세상으로 이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모순 속에 존재하는 생산물이 화폐로 표현되고 상품의 변모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자본주의 생산의

27) J. Robinson, *Essai sur l'Economie de Marx*, 1971, p. 40.

28) Shoul, “Karl Marx and Say's Law”, 1957.

첫째 조건”²⁹⁾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는 재생산과정에서의 공황 가능성을 보여 줌으로써 세이법칙을 부정하고 있다. 그는 상품의 판매와 구매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황의 첫번째 가능성을 보여 주고, 이어서 두 번째 가능성은 화폐가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화폐가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한, 화폐는 가치의 측도 및 가치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다른 순간에 작동하게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순간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만일 가치가 두 순간 사이에 변한다면…… 상품의 판매액은 가치의 실현을 충족시키기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가치가 변하지 않더라도 미리 정해진 기간 내에 팔리지 않는다면 화폐는 지불수단으로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³⁰⁾

이와 같이 마르크스에 따르면 공황은 상품을 팔 수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어진 기간 내에 팔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마르크스에서의 세이법칙에 대한 부정은 기본적으로 화폐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가의 무리한 이윤추구행위는 자본가들의 무정부적인 경쟁 속에서 수요규모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과잉공급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더욱이 자본가는 생산과정을 통해 노동 및 자본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려 하기에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구매력 약화로 상품 수요를 위축시켜 과잉생산을 악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제조업자가 생산한 상품은 일단 일정 기간 도매업자의 창고에 있다가 소비자에게 팔리기에 상품은 과잉공급될지라도 일단은 흡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공급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외에도 생산자가 상품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당장 단기적인 운영자본이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생산자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단기적인 현금유입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에는 과잉생산의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는 바, 마르크스는 이런 가능성 속에서 세이법칙에 대한 부정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마르크스의 세이법칙에 대한 부정은 궁극적으로 수요(투자)와 공급(저축)의 괴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마르크스는 『자본론』의 3권에서

29) K. Marx, *Theories sur la Plus-Value* II, p. 598.

30) K. Marx, *상계서*, p. 612.

투자결정에 참여하는 사람과 저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동일인이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축과 투자결정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케인즈에서와 같이 생산량이 저축을 투자와 일치시키기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자율이 투자와 저축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자본가가 금융자본가와 산업자본가로 완전히 구분될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당시로는 이런 분리가 확연하지 않았기에 이자율에 의한 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케인즈에서와 같이 생산물에 의한 투자와 저축의 조정을 고려하기는 하였지만 보다 자세한 조정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찾기가 어렵다.

IV. 일반균형이론과 세이법칙

1. 왈라스

고전파 경제학의 이론체계에서는 대체로 자본의 공급자와 자본의 수요자에 대한 분리가 불명확하였기에 세이법칙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다소 미약하였다고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왈라스는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이 “자본가의 역할과 기업가의 역할을 구분하는 데 실패하였다”³¹⁾고 지적한다. 그런데 세이법칙을 토대로 하는 영국의 고전학파가 저축과 투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세이가 기업인의 역할에 대해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소 ‘놀랍고 동시에 아이러니’³²⁾하다고 평가된다.

세이는 자신의 *Traite*에서 “자본가는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가 스스로 자본을 사용할 때는 이윤을 얻고, 자본을 사용하여 자본의 서비스를 소비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가에게 빌려 줄 때는 이자를 받는 사람이다. 기업가는 자본 전체 또는 일부를 자신이 소유하는 자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가가 아니다. 자본가는 자본가인 동시에 기업가이기도 하다”³³⁾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자본가와 기업가가 동일인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31) L. Walras, *Elements d'Economie Politique Pure*, 1952, p. 421.

32) Morishima, *Ricardo's Economics*, CUP, 1989, p. 195

33) J. B. Say, *Traite d'Economie Politique*, Paris, 1826, p. 272-273.

들의 역할은 독립적이라는 점이다. 기업가는 투자결정을 하며, 기업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세이의 기업가는 왈라스와 슈페터의 기업가와 일맥상통한다고 평가된다. 특히 세이는 오귀스트 콩트를 위시한 당시의 실증주의적 사회관의 영향하에 기업활동을 셋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기업활동의) 세 가지를 한 사람이 모두 수행하기는 힘들다. 일부에서는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는데, 이들은 과학자이다. 다른 사람은 유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과학자의 지식을 활용하는데, 이들은 농업경작자, 제조업자, 상인인데 이들을 모두 통틀어서 기업가라고 한다.”³⁴⁾

왈라스 자신은 세이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기업가의 역할과 관련하여서 왈라스는 세이의 이론을 대체로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왈라스는 자신의 *Elements*에서 “토지의 소유자를 지주, 개인적 재능의 보유자를 근로자, 자본의 소유자를 자본가라고 부르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번째 사람을 기업가라고 하자. 기업가의 역할은 농업, 산업, 상업의 세 가지 생산요소를 조합하기 위해 지주로부터 땅을 빌리고, 근로자에게서 개인적 재능을 고용하며, 자본가로부터 자본을 빌린다.”³⁵⁾

소비재시장에서 기업가는 재화의 판매자인 반면, 지주, 근로자, 자본가는 재화의 구매자가 된다. 자본재시장에서는 새로운 자본재를 생산하는 기업가는 자신의 생산물을 다른 기업가에게 판매한다. 자본재를 구입하려는 기업가는 화폐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자본가에게 돈을 빌린다. 자본재의 수요와 관련하여 왈라스는 “신규 자본재의 수요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가에게 오는 것이지, 저축을 창출하는 자본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³⁶⁾라고 강조한다. 자본재와 소비재의 생산이 위와 같이 결정되면, 기업가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 토지, 자본이 규모를 결정하여 필요한 양을 충당하기 위해 생산서비스의 시장으로 가서, 이들을 구입한다.

이와 같이 왈라스의 체계에서는 투자가 일단 정해지면 자본재의 생산규모가 결정되고, 이어서 자본재 생산산업에서의 생산요소의 수요도 따라서 정해진다. 그러면 생산재산업에서 임금, 이자, 지대가 생산요소 공급자에게 지불되고, 이에 따라 소비재의 수요 및 소비재의 생산규모도 정해진다. 이렇게 정해

34) J. B. Say, 상계서, p. 51.

35) Walras, 상계서, p. 191.

36) Walras, 상계서, p. 245.

진 생산량은 소비재산업에서 지불된 임금, 지대, 이자로부터 발생하는 추가적인 소비재수요를 유발시킨다. 그 결과 소비재산업에서의 총생산규모가 결정되고 이에 비례하여 필요한 생산요소의 수요가 결정된다.

그런데 이런 왈라스의 자본형성이론에서는 자본, 토지, 노동의 개별수요가 공급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에 왈라스는 새로운 자본재의 투자수요가 일반균형의 다른 방정식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그 결과 왈라스의 일반균형이론의 체계에서는 완전고용의 달성이 항상 가능하다. 그런데 왈라스의 이론체계에서는 독립적인 투자함수가 설정되어 있지 못하기에 비록 왈라스가 기업가의 투자결정의 독립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이법칙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완전경쟁이 지배하는 균형체계에서는 균형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가격이 탄력적으로 적응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왈라스는 투자변수를 탄력적으로 적응되는 변수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 일반균형이론에서는 독립적인 투자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가의 자리가 없다. 비록 왈라스가 *Elements*의 도처에서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일반균형의 이론체계에서는 독립적 투자결정자 대신에 시장메커니즘이 투자를 균형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왈라스 자신이 일반균형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가 완전히 탄력적인 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³⁷⁾ 그럼으로써 그의 일반균형이론 체계에서는 기업가의 독립적인 투자결정은 사라지고 세이법칙이 지배하게 되었다. 만일 왈라스가 자신의 일반균형이론 체계에 독립적인 투자결정을 하는 기업가를 포함시켰다면 일반균형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빅셀과 슌페터

왈라스는 자신의 *Elements*에서는 세이에 이어 케인즈를 내다보는 기업가의 역할을 상정하고 있지만 그의 일반균형이론 체계에서는 기업가의 독립적인 역할을 배제하였다. 그 결과 일반균형이론 체계는 세이법칙이 성립하고 완전고용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왈라스는 세이법칙과 관련하여 케인즈를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지만, 실제로는 일반균형의 존재에 대

37) Morishima, *Walras' Economics*, p. 73.

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결과적으로는 세이법칙을 수용하였다. 왈라스 이후 세이법칙과 관련해 왈라스와 케인즈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데 기여를 한 경제학자로는 빅셀과 슈페터를 들 수 있다.

빅셀은 자신의 *Lectures*에서 19세기 말의 이자율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격의 하락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고전파 경제학의 기초를 이루는 세이법칙과 화폐수량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빅셀에 의하면, 세이법칙이 지배하는 경우 일반적인 의미의 물가상승은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한다.³⁸⁾

“가격의 상승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세이가 보여 주었듯이 재화가 제각기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면 가격상승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 한 상품이 다른 상품과 최종적으로 교환되는 중간단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다. 화폐이론은 주어진 조건에서 상품의 화폐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지 또는 모자라는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³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셀이 당시에 목격한 현실은 이자율과 함께 가격수준이 꾸준히 하락하는 현상이었다. 이런 물가의 지속적 하락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빅셀은 화폐경제에서는 세이법칙이 작용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즉 생산물은 생산물이 아닌 화폐와 교환되어지기에, 재화의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가 없더라도 통화정책이나 화폐의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에 의해 물가는 영향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른 말로 화폐적 요인에 의해 재화의 수요와 공급 간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가격의 움직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빅셀은 세이법칙을 화폐이론과 연계시켜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왈라스보다는 케인즈에게로 한 발 더 다가갔으나, 이를 고용이론과는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슈페터의 가장 큰 기여는 경제이론에 기업가, 혁신, 창조적 파괴 등을 도입한 점이라 하겠다. 물론 왈라스도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

38) 세이법칙과 가격수준 결정의 문제는 빅셀 이후 랑게와 파틴킨에 의해 ‘왈라스법칙’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다시 제기되었다. 본고에서는 랑게와 파틴킨의 입장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39) K. Wicksell, *Lectures on Political Economy*, Vol. II, 1935, pp. 159-160.

하고 있다는 점에서 슈페터의 기업가이론을 왈라스의 연장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슈페터는 자신의 『경제발전론』 제3장에서 신용과 자본에서 경제발전을 인구증가, 신기술의 발명과 같은 외생적 요인이 아닌 공급 측면에서 조성되어 지는 생산요소들의 새로운 결합을 의미하는 내생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기업가가 생산요소를 새로이 결합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자본은 은행의 신용창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경제가 일정한 경로를 따라 생산과 소비를 되풀이하는 정태적 균형의 상태에서는 기업가는 생산요소의 신결합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가가 경제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은행이 화폐를 새로이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가는 은행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진 화폐를 대출받아 생산수단의 신결합을 이룬다. 물론 추가적인 화폐창출 결과 재화의 가격은 상승하고, 기존에 화폐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본가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슈페터의 발전과정은 인플레이션을 통한 강제저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은행은 예금을 토대로 신용을 창출하고 이를 기업가에게 빌려 주면, 기업가는 추가자본을 토대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슈페터에서의 은행가는 기업가에 이어 제5의 경제주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은행은 자본을 무한정 공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은행가는 기업가들에 의해 제시된 바람직한 투자계획 중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이 은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경제 전반에 걸친 방향 역시 은행가에 의해 달려 있다고 하겠다.

슈페터가 상정한 경제에서는 모든 저축은 은행에 모아지고, 은행가는 저축된 돈을 토대로 기업가의 투자계획을 승인한다. 따라서 투자가 저축에 의해 결정되어지기에 결과적으로 세이법칙은 적용된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총대출규모는 은행가가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는 투자계획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어지지만 실제로 총투자는 은행가가 설정한 신용창출규모와는 별도로 결정될 수 있다. 아무튼 일단 투자가 결정되면 은행에 의해 지지되어지는 투자계획은 실행되어진다. 즉 자본재를 구입하고 근로자는 고용되고, 생산이 시작된다. 그 결과, 경제에서의 저축규모는 변하여 사후적으로 저축이 투자에 적응하게 된다.

이런 슈페터의 해석은 세이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와는 달리 저축과 독립적인 투자행위가 상정되어 있으며, 투자행위와 저축행위 간의 매개역할은 은행가⁴⁰⁾

40) 슈페터에서의 은행가의 역할은 Morishima의 *Ricardo's Economics*, pp. 204-206 참조.

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업가가 자신의 순소득 이상으로 투자를 계획하는 경우, 기업은 그 가치만큼의 신규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것이 흡수될 때 계획된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 은행은 신용창출의 범위 내에서 기업가로부터 사채를 사들이고, 기업가는 새로이 유입된 은행의 돈을 갖고 자본재를 주문하고 생산한다. 그 결과 자본재 생산부문에서는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자는 소득의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한다. 여기서 소비재의 구입에 사용된 돈은 소비재부문의 근로자의 소득이 되어 그 일부는 소비되고, 나머지는 다시 저축된다. 새로운 투자계획 결과, 소득이 새로이 창출되고 그 일부분은 소비되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되어 결과적으로 다시 저축으로 은행으로 돌아가게 되어 저축은 투자와 일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슈페터의 체계는 저축이 은행의 신용창출에 의해 탄력적으로 조달되어지고, 사후적으로 투자에 조정된다는 점에서 거의 케인즈와 유사한 접근방식을 보여 준다.

V. 일반이론과 세이법칙

세이가 자신의 판로법칙을 이론화하고, 리카도에 의해 고전파 경제학 체계 내에서 자리매김 되어진 후, 마르크스, 왈라스, 빅셀, 슈페터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지만, 세이법칙에 대한 부정이 체계화된 것은 케인즈에 의해서이다. 케인즈는 자신의 『일반이론』에서 세이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경제적 조건이 변했음을 지적한다. 즉 세이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저축수준에서도 투자가 가능해야 함을 뜻한다. 그런데 케인즈가 『일반이론』을 집필하던 20세기 초반만 해도 이미 경제발전이 상당한 정도 이루어진다고 파악하였다. 케인즈에 의하면, 고전파 경제학이 지배하던 산업혁명 초기시절에는 거의 무한정으로 투자기회가 많았기에 어떤 저축수준에서도 투자가 가능하여 세이법칙이 성립할 수 있었던 역사적 조건을 갖추었지만 그 후 1세기가 지난 케인즈시대에는 경제적 구조가 크게 변했다는 점에서 세이법칙의 현실성을 문제삼았다.

이와 더불어 왈라스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듯이 고전파 경제학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기업가와 자본가의 구분이 다소 모호하였지만 20세기 초반만 되어도 투자결정을 담당하는 기업가와 저축행위를 하는 사회계층은 이미 상당히 구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케인즈는 역사적 여건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

런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경제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이법칙을 부정하였다.

그러면 케인즈의 일반이론에서 나타난 세이법칙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케인즈는 일반이론 제Ⅱ절 고전과 경제학의 공준에서 고전과 이론을 i) 실질임금과 고용의 한계비효용의 일치, ii) 비자발적 실업의 부인, 그리고 iii) “산출 및 고용의 수준여하를 막론하고 총체적인 수요가격은 총체적인 공급가격과 일치한다는 의미에서, 공급은 그 자체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법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세 개의 가정은 타당하면 다 같이 타당하고,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며, 그들 가운데 어느 하나는 반드시 다른 두 개를 논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모두 동일한 것으로 귀착하는 것이다”⁴¹⁾라고 지적한다. 즉 케인즈는 세이법칙이 단순한 하나의 독립적인 이론이 아니라 고전경제학을 지탱하고 있는 근본 가정임을 인식하고, 세이법칙에 대한 부정이 곧바로 고전과 경제학 체계의 종언이라고 판단하였다.

케인즈의 세이법칙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세이법칙을 케인즈가 자신의 경제학 체계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2대 변수인 산출 및 고용과 연계시켰다는 점이다. “생산물 전체의 총수요가격은 산출량여하를 막론하고 그 총공급가격과 일치한다는 세이의 법칙은 결국 완전고용에 대한 장애는 없다는 명제와 같은 것이 된다.”⁴²⁾ 더욱이 어떤 산출 및 고용수준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것은 케인즈가 세이법칙을 총수요와 총공급의 항등관계로 해석했음을 보여 준다. 즉 저축(S)과 소비(C)로 구성되는 총공급(Y)과 투자(I)와 소비(C)로 구성되는 총수요가 항상 같기에 $Y \equiv C + I$ 가 성립된다. 이는 다른 말로 평균소비성향과 평균투자성향의 합이 1이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소비할 것인가 또는 소비하지 않을 것인가의 결정은 확실히 개인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며, 투자할 것인가 또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 역시 그러하다.”⁴³⁾ 따라서 이런 의사결정이 개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소비성향과 투자성향의 합이 1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일반적으로 사회에는 1보다 작은 소비성향을 갖고 소비생활을 하는 계층과 항상 투자 결정에만 전념하고 있는 기업가계층이 있는데, 이들 두 계층의 소비성향 및 투

41) J. M. Keynes, 조순 역,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비봉출판사, 1985, p. 22.

42) Keynes, 상계서, p. 26.

43) Keynes, 상계서, p. 64.

자성향의 합이 1이 되리라는 것은 소비자의 1에 못 미치는 소비성향을 기업가의 투자성향으로 상쇄시킬 구체적 메커니즘이 없기에 우연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케인즈는 세이법칙에 대한 부정의 실마리를 찾았다.

케인즈는 저축을 소득에서 소비를 제하고 남은 잉여로 정의하였기에 세이법칙은 저축과 투자의 항등관계로 표현된다($S \equiv I$). “저축액과 투자액 사이의 균등관계는 한편으로는 생산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 또는 자본설비의 구매자 사이의 거래의 양면적인 성격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총계로서 소득 가운데 소비를 초과한 부분의 액, 즉 우리가 저축이라고 부르는 액은 우리가 투자라고 부르는 자본설비에 부가되는 액과 다를 수 없다.”⁴⁴⁾ 이와 같이 케인즈는 투자와 저축이 세이법칙의 사전적(ex ante) 항등관계와는 다른 사후적(ex post)으로 항등관계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케인즈는 사전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았던 저축과 투자가 사후적으로 일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득의 움직임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투자의 증대는 소득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저축의 증대를 초래해 사후적으로 저축이 투자에 조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저축과 투자의 일치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케인즈는 투자가 국민소득의 증진을 가져오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투자의 승수효과를 도입하고, 이어서 소비성향은 1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증대되면서 점차로 줄어든다는 소비성향에 관한 심리적 법칙을 규명하였다.

이에 반해 모리시마는 케인즈의 이론체계를 왈라스의 일반이론의 연장에서 파악하면서 케인즈에서의 세이법칙 비판의 실마리를 자본재의 수요함수에서 찾고 있다. 모리시마⁴⁵⁾에 의하면, 왈라스의 방정식체계에서는 균형조건의 일환으로 이자율(r)과 자본수익률(f)이 일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본수익률은 세이의 판로법칙이 보장되기에 자본수요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f(q/p) = r \quad (q: \text{자본의 순이익}, p: \text{자본재 가격}).$$

반면, 케인즈는 자본수익률을 나타내는 자본의 한계효율성을 자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한다고 가정하였다.

44) Keynes, 상계서, pp. 63-64.

45) Morishima, *Ricardo's Economics*, pp. 159-161.

$$f(q/p, d) = r \quad (d: \text{자본수요}).$$

특히 경제의 침체기에는 자본재의 투자수요가 증가할 때, 자본의 한계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아무리 낮을지라도 위의 균형식을 충족시켜 줄 자본수요는 아주 작아야 한다. 그 결과 총투자는 생산된 자본재수준에 못 미치게 되어 자본재시장에서의 균형조건은 깨지게 된다. 이와 같이 자본재시장에서의 유효수요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완전고용의 달성을 불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리시마의 해석은 케인즈의 세이법칙 부정을 설명하는 데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케인즈가 세이법칙을 부정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케인즈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있던 당시의 불완전고용 상태가 있다. 그는 이런 비자발적 실업현상을 세이법칙이 지배하는 고전과 경제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기에 세이법칙을 부정함으로써 고전과 경제학의 틀을 깨고자 한 것이다. 한편 모리시마는 자본의 한계효율성을 자본재수요의 감소함수로서 가정함으로써 투자의 기회가 무한정 많지 않다는 점과 독립적 투자함수를 상정함으로써 저축과 투자가 독립된 행태임을 동시에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케인즈시대의 경제현실의 변화를 갖고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케인즈에서의 세이법칙의 부정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축은 투자와 저축을 연결시킬 고리가 없다는 점이다. 케인즈는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행위가 똑같은 것으로 보이게 하는 시각상의 환상에 의해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의 소비를 하지 않는 의사결정과 장래의 소비를 마련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서로 연계관계가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인즉, 후자를 결정하는 동기는 전자를 결정하는 동기와 결코 어떤 단순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⁴⁶⁾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런 저축과 투자의 연결고리의 부재는 결국 세이법칙이 상정하고 있는 완전고용이 달성되지 못하도록 한다. 이는 다른 말로 저축과 투자는 모두 미래를 담보로 하는 ‘조건부 의향’⁴⁷⁾인데 불행히도 현실적인 시장에서는 이런 의향을 상대방에게 전달시킬 기제가 없기 때문이다.

46) Keynes, 상계서, p. 21.

47) G. L. S. Shackle, *The years of high theory*, CUP, 1967, p. 140.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서 상대방의 잠재적인 의향에 대한 무지⁴⁸⁾가 결과적으로 불완전고용을 유발시키고, 그 결과 세이법칙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소비자 저축행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신의 부를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기계류에 투자하는 행위가 조건부 약속 체계에 의해 완전히 알려질 수 있다면 세이법칙은 성립되고 완전고용의 달성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에서 생산요소의 공급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으로 자신의 급여를 받을지를 사전적으로 명시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화폐가 존재하는 경제에서는 이를테면 한 사람이 저축할 때, 그 사람이 언제 돈을 찾아서 소비자를 구입할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의향, 또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의 대응방식,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을 알 수 없다는 점이 케인즈에서의 세이법칙 부정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1. Baumol, W. J., "Say's at least eight laws, or what Say and James Mill May Really Have Meant", *Economica*, Vol. 44, May 1977.
2. Denis, H., *Historie de la pensée économique*, PUF, 1980.
3. Dobb, M., *Political Economy and Capitalism*, Routledge and Keagan Paul Ltd., 1940.
4. Foley, D.K., "Say's Law in Marx and Keynes", *L'Heterodoxie dans la Pensée Economique*, ed., Deleplace and Maurisson, 1985.
5. Keynes, J. M., 조순 역,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비봉출판사, 1985.
6. Malthus, T. H.,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820.
7. Marx, K., *Le Capital*, Vol. 1, Ed. du Progres, 1982.
8. _____, *Theories sur la Plus-Value II*, Editions Sociales, 1974.
9. Morishima, M., *Ricardo's Economics*, CUP, 1989.
10. _____, *Walras's Economics*, CUP, 1977.
11. Pasinetti, L.,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CUP, 1974.

48) Shackle, 전제서, p. 141.

12. Ricardo, D., *Letters, Works and Correspondence of Ricardo*, Vol. VI, ed. by Sraffa, CUP, 1952.
13. _____,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Works and Correspondence, Vol. 1, CUP, 1970.
14. Robinson, J., *Essai sur l'Economie de Marx, Essay on Marxian Economics*, Macmillan, 1942, 2nd ed., 1966의 불어번역, Dunod, 1971.
15. Say, J. B., *Oeuvres Diverses*, Paris, 1848.
16. _____, *Traite d'Economie Politique*, Paris, 1826, Calmann-Levy, 1972.
17. Schumpeter, J.,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George Allen and Unwin, 1954.
18. Shackl, G. L. S., *The years of high theory*, CUP, 1967.
19. Shoul, B., "Karl Marx and Say's Law", *The Quaterly Journal of Economics*, 1957.
20. Silem, A., *Historie de l'analyse écinomique*, Hachette, 1995.
21. Sismondi, S., *Nouveaux principes d'economie politique ou de la richesse dans ses rapports avec la population*, 1819, livre Z, ch. 4.
22. _____, *Quatre études sur la politique sociale et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1838.
23. Walras, L., *Elements d'Economie Politique Pure*, Durand Auzias, 1952.
24. Wicksell, K., *Lectures on Political Economy*, Vol. II, Routledge and Keagan Paul, Ltd., 1935.